

時用鄉樂譜 內堂歌詞의 語釋

權 在 善

<目 次>

- | | |
|-----------------------------|--|
| (一) 序 | 으로의 解釋 |
| (二) 「남중」의 訛傳性과 가능한 解釋의 몇 가지 | (B) 「남중」(痲腫)으로의 解釋
(C) 「남중」(襪松)으로의 解釋 |
| (A) 「남중」(奴一男+중(奴婢)) | (三) 內堂歌詞의 語釋 |

(一) 序

時用鄉樂譜는 刊行年代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歌詞에 「△ ○」 등의 글자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 壬辰亂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西京別曲, 靑山別曲, 雙花曲, 鄕石歌 등이 수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傳承되는 高麗歌謠를 실은 俗謠集으로 보인다.

그 중에 巫俗의 歌謠로 보이는 많은 歌詞가 실려 있다. 이 巫俗의 歌詞는 오래 동안 입으로 전하다 뒷날에 채록된 것으로 보이며, 時用鄉樂譜는 그러한 古本에서 轉載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해서 訛傳된 낱말도 많이 있고 誤寫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巫俗 歌謠는 그 語釋이 매우 어렵다.

內堂도 그러한 巫俗 歌謠의 하나인데, 이것 역시 訛傳되거나 誤寫된 낱말이 많아 그 語釋이 쉽지 않다.

그런데, 얼핏 보면 그 중의 몇 개가 現代語의 語形과 같은 것이 있어 일부의 語釋이 꽤 쉬운 듯한 느낌이 있어 그러한 낱말을 근거로 해석을 하기도 하나, 면밀하고 주도한 語釋을 통하여 바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런 불명확한 語釋을 기초로 內堂 歌詞의 성격이나 다른 가치를 속단해서는 안되며, 또 다른 古典文學의 해석에 함부로 응용해서도 안 될 일이다.

內堂의 語釋은 그 낱말을 壬辰亂 이전의 語形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誤寫되고 訛傳된 점을 文脈이나 전체 내용으로 검토하여 전체 내용의 構造의 相

關 속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그 뿐 아니라, 그 내용의 倫理的 양상도 時用鄉樂譜의 다른 歌謠나 巫俗 歌謠의 내용에 비치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民俗學이나 人類學의 사례를 끌어다 時用鄉樂譜의 다른 巫俗歌謠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俗謠集이라 하더라도 鮮初부터 淫詞, 俚俚로 詞俚 不載를 논란해 온 朝鮮에서 公刊된 歌謠로서는 그 내용에 담긴 倫理性이 일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婦德을 강조하고 奴婢 제도가 엄격했던 朝鮮社會에서 賤民 상호간의 性 문란은 몰라도 階層間的 性 문란으로써 社會 기강을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내용을 담은 歌詞의 公刊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筆者는 內堂 歌詞의 誤寫 訛傳된 낱말을 점검하면서 解釋 가능한 면을 탐색하고 난 뒤에 「남중」의 方言 고찰을 통하여 그 뜻을 확인하고 내용의 構造的 相關性和 文脈的 의미에 의하여 바른 解釋을 확립하고자 한다.

(二) 「남중」의 訛傳性和 가능한 解釋의 몇 가지

內堂의 歌詞는 다음과 같다.

山水清涼소리와
 清涼애사 두스리들어디새라
 道場애사 오시느니
 혼남종과 두남종과
 열세남종 주석셔라
 바회에 나르새라
 다로림 다리림
 열세남종이 다여위실 더드린
 너물며서 슬와지
 聖人無上兩山大勒하
 다로림 다리러

위의 歌詞 중에 餘音 「다로림 다리러」를 빼고, 解釋하기 쉬운 듯하며 주요 關鍵이 되는 것이 다음 關鍵이다.

혼남종과 두남종과

열세남종 주서새라
 바회에 나르새라
 열세남종이 다여위실 더드런
 니를피서 슬와지

이 귀절에서 核心이 되는 낱말은 「남종」인데, 이 「남종」의 解釋은 다음처럼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A) 「남종」(奴-男+종(奴婢))으로의 解釋

「남종」(奴)으로의 해석은 누구든 쉽게 생각되는 해석이다. 그러나 「남종」(奴)의 語形은 現代語로서는 「奴」의 낱말로 맞지마는 壬辰亂 전의 語形으로는 맞지 않다.

남진종 [奴] (訓蒙 上 33)
 거집종 [婢] (訓蒙 上 33)

奴(남자종)은 당시 낱말로서는 「남진종」이다. 時用鄉樂譜의 「남종」은 「남진종」과는 거리가 멀다.

가령 訛傳된 語形이라 보드라도 다음 같은 점에서 그런 해석은 부당하다. 첫째, 「남종」(奴)으로 보면 歌詞의 끝부분은 다음처럼 해석된다.

열세남종이 다여위실 더드런
 니를피서 슬와지

(해석)

열 세 남종이 다 여위실 더드런 님을 피서 살과지
 (열 세 남종(奴)이 다 여위(腹)실 때(時)면 입을 모시고 살고져 하노라)

따라서 극단의 色情的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時用鄉樂譜의 다른 巫俗歌謠에 그러한 色情的 내용을 가진 歌詞는 없다.

瘴マ스실가 三城大王
 일오스실가 三城大王
 瘴이라 難이라쇼세란디

(三城大王)

(해석)

瘴 가시실가 三城大王 (瘴(風土病)을 변화시키겠음니까? 三城大王님)

4 嶺南語文學(第14輯)

일 앓아실가 三城大王 (일(事, 難)을 앓아졌읍니까? 三城大王님)

瘴 難을 저차소서 (瘴과 難(일, 難=不幸)을 拷問하소서)

마스-~마시-마시->마익>마스-(변하다)

本來스물은 性이 가시디 아니호야(月釋 1: 50)

으스-~앗아->아사->으스(앓았다)

늑미 지은 거슬 아사 제 즐기느니(月釋 1: 32)

저차-~저조-(「詰問하다, 拷問하다」와 同源, 同意語로 보임)

저조아 못다[拷問](同文解 下 29)

저주니[詰之](內訓 2: 78)

술도도터라 드로라

고기도도터라 드로라

엇더타 別大王 들러신티

四百瘴難을 아니 저차실가

(大國 一)

(해석)

술도 똥터라 들고라 (술(酒)도 똥터라 들고 싶다)

고기도 똥터라 들고라 (고기(肉)도 똥터라 들고 싶다)

엇덜타 別大王 들러신티 四百瘴難을 아니저차실가 (어찌 別大王님 들러셨는 데, 四百 瘴과 難을 아니 拷問하실까?)

술(酒)과 고기(肉)는 나을지언정 色情的 욕망을 나타낸 것은 없다.

둘째로, 「열세남종이 다여위실」을 「열 세 남종(奴)이 다 여위(腰)실」로 해석하면 主體尊待 「시」를 쓴 것이 부당하다. 主語가 奴婢인 「남종」(奴)이면 「여위」로 하여 主體尊待는 필요 없는 것이다.

(B) 「남종」(痲腫)으로의 解釋

筆者가 보는 바로 가능한 해석의 또 한 가지는 「남종」을 「림종」(痲腫)의 訛傳으로서의 「남종」으로 보는 것이다.

흔 남종(痲腫)과 두 남종(痲腫)과

열 세 남종(痲腫) 주서씨라

바회에 나르새라

열 세 남종(痲腫)이 다 여위실 더드런

니물 피서 슬와지

病과 災難을 물리치고자 하는 巫歌로서는 매우 적절한 듯하고 실제의 治療方法에도 맞는 것이 된다. 腫氣에서 고름을 빨아 내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의 한 가지이다. 그러나, 語釋上으로는 수공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

첫째, 「림종(痲腫)은 「남종」과는 거리가 멀고, 「남—」에 적합한 낱말이나 漢字가 없다.

둘째, 「바회에 나르새라」(바위에 나르(運搬)도다)의 귀절이 文脈上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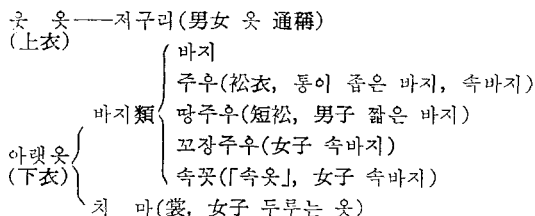
셋째, 「남종(痲腫)이 여위실」로 보면 主體尊待 「시」의 사용이 적합치 않다.

(C) 「남종(襠松)으로의 解釋

「남종」(襠松—헤여진 바지)로 해석함은 얼핏 보아 엉뚱한 해석으로 보이지만 內容의 構造的 相關性이나 「內堂」이라는 題目과의 관계로 보아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松」(종—속바지)는 우리말에 잘 쓰이지 않는 생소한 漢字語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듯한 느낌을 주나, 그와 반대로 「松」의 漢字語는 오히려 일찍부터 우리말에 받아들여져 國語化한 漢字이다.

표준어에는 「松」에 語源을 둔 衣名은 없지만 慶尙道方言에는 衣名(옷 이름)에서 중요한 語源이 되고 있다. 慶尙道方言의 옷옷과 아랫옷의 衣名은 다음과 같다.



「주우」는 「가랭이의 폭이 좁은 바지, 속바지, 바지」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 말은 「중의」의 語形에서 母音同化를 한 것이다. 慶尙道方言의 비슷한 母音同化的 예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희 → 종이 → 조호(紙)
 동이 → 도호(瓦器)
 중의 → 중이 → 주우(松衣)

「주후」(松)의 語源은 「松衣」이다. 「松」은 東音으로서는 「중」이나 漢音으로는, 「중」으로 音譯되겠으나 單母音化하면 「중」이다.

漢音(中古推定音) 松 tsiwong(廣韻聲系 p.2)

東音 松 속바지 중(大漢韓辭典 p.1352)

「중」(속 바지, 통이 좁은 바지)은 中國에서 들어온 外來品으로 그것을 받아드릴 때 中國의 이름에 따라 「중」(松)으로 일컫기도 하고 그 漢字의 東音으로 「중」(松)으로 일컫기도 한 것 같다. 이러한 예는 中國에서 들어온 外來의 신발 「靴」를 中國의 이름에 따라 「화」(靴)라고도 하고 東音에 의해서 「화」(靴)라고 하기도 한 것과 같다.

획 화〔靴〕(訓蒙字會 中 11)

「주후」의 語源이 漢語이기 때문에 漢字와 어우른 複合語가 이루어진 것도 보겠다.

短松衣(단중의) → 땅주후

이상으로써 「松」(중)은 우리말에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高麗 때 「바지」의 뜻으로 쓰였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남중」은 「檻松」(헤어진 바지)로 해석하고자 한다. 바지는 저고리보다 더욱 잘 헤어지기 때문에 「헤어진 바지」의 명칭이 생길 법하기 때문이다.

(三) 內堂 歌詞의 語釋

內堂 歌詞의 語釋은 「內堂」이라는 題目과 「남중」(檻松)의 意味가 관련되는 構造的 相關面에 기초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內堂」은 「夫人」을 뜻한다. 「山水淸涼」(산의 물은 맑고 서늘함)과 남중(檻松)을 관련시켜 보면 歌詞의 내용은 婦女들이 산골짜기의 맑은 물에 와서 빨래하는 내용일 것임이 뚜렷해진다.

山水淸涼소리와

(해석)

山水淸涼 소리 와 (산골 물의 맑고 서늘한 속에 와서)

소리~(「소리」의 誤寫)

須菩提 바닷 스배 便安히 안자서사(月釋 21 : 206)

「소리」는 「소리, 소래」(聲)로는 文脈이 통하지 않는다. 傳寫 때 「소비」(「송」(中)+「이」(處格助詞))의 誤寫로 보인다. 「비」이 희미하게 보이면 「리」로 誤認할 가능성이 크다.

淸涼애사 두스리들 어디새라

(해석) 淸涼애사 두스리들 어디새라

「어디새라」는 「어디새라」의 語寫로 본다. 目的格 다음에 主格疑問詞 「어디」가 올 수 없다.

淸涼애사……淸涼, 애(處格助詞), 사(強勢助詞)

두스리들……두스리-(용기가 얻어지다), 口(名詞化接尾辭), 을(目的格助詞)

어디새라……얻-(得), 어(語尾), 새라(샤(感嘆語尾)+이(叙述格語尾))

「두스리-」는 「도슬리-」의 古形으로 보인다.

도스르다~[르번](-슬리, -스른)「他」(一) 마음을 다잡다, (二) 용기를 내다
(文世榮, 우리말 辭典 p. 375)

頭音 「두」가 「도」로 대응되나 그러한 예를 다음 같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두루싸다(月釋)→도리키다

-두고(月釋)→-드곤(老解)

「두스리-」는 다음 같은 構成과 變化를 겪은 것으로 보겠다.

두스르(他助詞)+이(被動語尾)→두스되-(自動詞)→두스리-

따라서, 「두스리-」는 自動詞이고 「용기가 얻어짐」 곧 「안심됨」의 뜻이 된다.

淸涼애사 (두스리) 두스리들 어디새라 (맑고 서늘함에야 마음이 안심됨을 얻었구나)

道場애사 오시느니

(해석)

道場(도랑)애사 오시느니 (도랑(溝)에는 옷(衣)이 나니)

道場(도량)……도량(澗)의 借字表記

「道場」은 「도량」으로도 읽히는데, 歌詞의 文脈의 內容으로 봐서 「道場」(修道場)으로 볼 수 없고 「山水清涼」한 빨래하는 시내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도량」의 借字表記일 것 같다.

흐남중과 두남중과
열세 남중 주서 섰라

(해석)

흐 남중과 두 남중과 열 세 남중 주서 섰라 (한 襤松(헤어진 바지)과 두 襤松과 열 세 襤松 주서 빨아)
주서……줏(拾), 어(語尾), 썰(洗)
그 穀食을 주서 어시톨 머기거늘(月釋 2 : 12)
웃 썰 한[瀾](類合 下 7)

바회에 나르새라

(해석)

바회에 나르새라(바위(岩)에 나르(運搬)도다)
나르(運搬)……나르(運搬, 現代語)

열세 남중이 다어위실 다드런

(해석)

열 세 남중이 다 어위실 더드란 (열 세 襤松이 다 넓게 퍼어질 때에는)

「어위실」은 가장 완벽한 낱말처럼 보이지만, 文脈上에 맞지 않고 「시」의 主體尊待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어위질」(넓어질)의 訛傳 또는 誤寫로 보인다.

어위질(원래 표기)

어위실(誤寫)

「어위지」의 뜻은 「넓어지다」 곧 「넓게 퍼이다」는 말로 「널다」의 뜻이다. 또 「더드런」은 「더드란」의 誤寫이다.

너모 어위여[太廣](內訓 2 : 34)

밤 머굼 던만명(月釋 8 : 8)

니를피셔 슬와지

(해석)

니를 뵈서 슬와지 (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슬와지……슌(白), 아(語尾), 지(希望語尾)

*슌아→슬바→슬와

「內堂」 곧 「婦女」를 제목으로 한 이 노래는 성실한 부인들의 일상생활의 단면을 그리면서 「聖人無上兩山大勒」에게 간절한 정성을 기도한 것이다.

빨래 거리를 가득 담아 이고 물 맑은 곳(山水清涼)을 찾아 와서 그 맑은 물을 보고는 좋은 빨래터라고 용기를 얻어 안심하고 빨래감을 부으니 도랑에 가득히 옷이 쌓이지만, 빨래하기 힘 든 헤어진 바지(襠松)를 하나, 둘… 열 세 개나 주어 빨아 말리기 위해 바위에 나르고, 잘 마르도록 넓게 펴서 그 바지들이 다 넓게 펴여진 때에야 일을 마쳤으니 비로소 입을 찾아가 모시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는 歌意이다.

이것은 우리 俗談의 「내 일 바빠 한 댁 방아」와 같은 발상이다. 내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내가 맡은 일을 먼저 열심히 해 치우고 그 다음에 내 불 일을 본다는 俗談의 뜻과 꼭 같은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이 노래는 옛날 우리의 서민층 부인들의 성실한 생활면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時用鄉歌譜

梁柱東, 麗謠箋注

李秉岐, 時用鄉樂譜의 한 考察(國文學研究叢書 2)

權在善, 慶北最南端方言의 母音研究(국어교육연구 2)

于 斌, 廣韻聲系

崔世珍, 訓蒙字解

月印釋譜

張二植, 大漢韓辭典

內訓

老乞大諺解

文世榮, 우리말辭典